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세션 6, 선거 체계적 공식화, 번호 1: 저자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6, 선거 체계적 공식화, 번호 1입니다: 저자.

우리는 구원 교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우리는 당신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 곧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우리는 선거 교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정찰을 했고,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체계화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 대한 간단한 서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봉사를 위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포함하여 구약과 신약에서 이것을 봅니다.

그러나 선거는 단지 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구원을 위해 선택하셨고, 봉사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셨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나 예견된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롭고 사랑의 선택에 기인합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이

은혜로만 이루어지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정성을 위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선택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칼빈주의자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아르미니우스파 신자들도 포함됩니다. 나는 아르미니우스파 형제 자매들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특정 교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저는 아르미니우스 체계 신학의 선택 교리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을 요약하고 참고 문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들의 글에 각주를 달 것입니다. 많은 경우, 첫째, 선거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합니다. 신약성서는 법인을 증거합니다.

물론 구약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구약이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에 대한 것이라고 동의하지만, 또한 약간 동의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선택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했듯이,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쓰여졌고, 선거 교리는 주로 바울의 서신에서 나왔으며, 개인이 아닌 교회에 쓰여졌기 때문에 확실히 사실입니다. 실제로 선거는 단체적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선거는 또한 개인적입니다. 그러니 우선 리소스입니다.

Denver Seminary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형제인 William Klein은 쓰여져야 할 책인 *The New Chosen People, A Corporate View of Election* (Zondervan, 1990)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쓰여졌고, 그는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철학자들이 거짓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기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이지 않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사실, 저는 선거와 자유의지라는 책을 쓴 후 제가 가르쳤던 교수진에 보고했을 때, 여러분이 배운 것 중 몇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우리가 개인의 선거를 올바르게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인의 선거를 잘못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사람들이 함께 속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좋은 포스트모던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불쾌한 포스트모던적 주제가 많지만, 집단성, 소속감, 단결, 사람들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은 좋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때때로 추악한 개인주의를 가르친다고 비난받는 선거는 사실, 우선 코를 세어 보면, 편지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쓰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이지만 확실히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둘째, 두 번째 아르미니우스주의 선거 관점은, 이미 제 작은 성경 서론에서 흔히 언급되고 암시된 바와 같이, 선거는 구원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H. 오톤 와일리, *기독교 신학*, 비컨 힐, 1940~43, 2권, 339 페이지에서 바로 이 말을 합니다.

선택은 구원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택은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의 저자이고 아버지가 아닌 성경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나는 너희를 택하고 정하여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의 열매가 남게 하였노라. 그것은 확실히 섬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 16절과 19절에는 사람들의 선택이 있는데,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그것은 거짓 선택입니다. 그것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코를 세어보면, 선거는 주로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성경적 자료의 맥락 안에서입니다.

또한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파의 선거 관점, 첫째, 선거는
법인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선택입니다.

선거는 구원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것이고, 또 다른 거짓 선택입니다.
그리고 물론 주요 견해는 아르미니우스 자신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웨슬리가 승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문을 의도적으로 아르미니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선거가 신앙에 대한 신성한 예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Wiley, Orton Wiley, *Christian Theology*, 2권, 340쪽. H. Ray Dunning,
Grace, Faith, and Holiness, Wesleyan 체계 신학, Beacon Hill, 1988, 43
5~436쪽. Wiley, Christian Theology, 2권, 340쪽.

레이 더닝, 그레이스, 믿음, 그리고 거룩함, 웨슬리안 체계 신학, 435~436
쪽. 와일리의 이 체계 신학 책은 여전히 크기 면에서 표준입니다. 3권이고
, 표준입니다.

Dunning, 그리고 또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사람, J. Kenneth Grider, Wesle
yan 거룩함 신학, Beacon Hill, 1994. J. Kenneth Grider, Wesleyan
거룩함 신학. Grider와 Dunning의 최근 체계적 신학은 Wesleyan 모드에서
Arminius의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둘 다 단권, 오, 600페이지 분량의 체계적 신학이고, 이 책을 포함한 더
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Wiley를 자주 참조합니다. 사실, 이 책들에는
칭찬할 점이 많고, 이 책들에 동의할 만한 점도 많습니다. 물론, 제가
체계적 신학을 쓴다면 제 책과 동의하지 않을 부분이 있지만, 선거를
포함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아르미니우스 교회에서는 완전히 무시하지만, 그들이 몇 페이지를 할애하는 것은 기쁘지 않습니다. 600페이지 중에서 선거 교리에 3~4 페이지를 할애하는 것은 성경적 강조에 비해 비례하지 않습니다. 600 페이지 중에서 60페이지는 어떨까요? 그것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죠. 공정하게 말해서, 제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엄지손가락이 제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칼빈주의 체계 신학이 배교 교리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Our Secure Salvation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의 절반은 보존 구절에, 절반은 경고 구절에 할애되어 있고, 그 중 많은 부분이 배도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신앙에 대한 신성한 예지에 근거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우리가 구절을 연구하면서 그 사실이 입증될 것입니다.

네, 선거는 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지는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어 연구 등에 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항상 그렇듯이 체계론은 주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증명입니다.

구원, 구원론의 맥락에서 예지나 예지가 사용된 구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신 근거가 그들의 믿음이나 믿음의 부족에 대한 예지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선거 저자. 성경은 명확합니다.

체계적인 그리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저자. 선거 타이밍.

선거 기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가? 선거 범위. 개인과 교회.

선거 목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선거.

역사적 선거. 영원한 선거. 선거와 예지.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취급. 선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선택과 부르심.

선거와 믿음. 선거와 복음은 실제로 결론을 내리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믿는 칼빈주의자들, 심지어 제가 그들의 이해에 있어서
옳거나 기본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열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20
절.

그리고 구원은 주님께 속합니다. 시편 38편.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거의
창시자라고 일관되게 언급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인용하자면,
주님이신 당신은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를 칼데아인들로부터 이끌어 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 :7.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셨고, 그는 땅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떤 민족이 그를 믿을지 기대하셨을까요? 어떤 민족이
그에게 충실할 것인지 기대하셨을까요? 이런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이
완고하고 고집 센 민족이라는 성경적 계시와 맞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서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용문,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4:2. 직설법과 명령법의 신약성서 구분은 구약성서에서 신약성서로 가져온 구분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그것이 직설법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이교도들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거룩하듯이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의 명령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시와 맞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5장은 분명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아,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땅의 민족 중에서 가장 큰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다.

이 주제는 신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난다. 마태복음 22:14. 많은 사람이 잔치에 초대되지만, 선택되는 사람은 적다.

마태복음 22:14. 요한계시록 17:14. 어린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한 번만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경적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충실합니다. 요한 계시록 17:14.

선거를 다루는 모든 신약 구절은 선거를 신에게 돌리거나 신성한 수동태를 사용하여 그 사실을 암시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유대인들은 점점 더 신성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이름에 대해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는 위에서 오는 지혜, 물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의미하고, 그들은 신성한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 대신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례와도 일치합니다. 축복받는 자는 ,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 이렇게 말합니다 .

그것은 신성한 수동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최소화하는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동태로 바꾸면, 하나님은 선택자, 선거자입니다. 선거는 하나님만의 일입니다.

한 구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선거의 저자입니다. 성령은 결코 아닙니다. 아들은 한 번만 ,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앞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말한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선거는 삼위일체의 일입니다. 인격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격을 구별하므로 다음 문장에서 선거는 삼위일체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다음 독립절에서는 특히 성부와 한 곳에서 성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립니다. 이것은 창조,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16절, 섭리, 골로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장 3절, 성자에게도 해당 됩니다 .

아들 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은 그의 강력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심판, 요한복음 5:22-23, 아버지 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7과 8에서, 돌아오는 그리스도는 입증과 심판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구약은 우리가 본 것처럼 구원을 주님께 돌린다.

신약성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립니다. 요한복음 5:28-29, 인자의 음성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나올 것이요, 그들의 무덤들이 나올

것이요, 어떤 자들은 영생으로, 어떤 자들은 심판으로 나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3, 아들은 죄를 정결케 한 후에 높은 곳에 있는 위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요한은 이 신약성서의 경향, 즉 구약성서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돌린 일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린다는 일반적인 신약성서의 경향을 취합니다.

신은 보통 구별되지 않습니다. 신약은, 삼위일체는 신약을 가르칩니다. 이전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듯이,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의미에서 은혜 교리의 하위 집합입니다.

물론, 신은 항상 거룩한 삼위일체였으므로 우리는 존재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신을 드러내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이 그 이상이라는 암시, 때로는 암시 그 이상의 암시가 구약성서에 있지 않습니까? 신은 단일체이지만, 단일체 내의 복수체라는 암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선하신 자비로우신 신이여, 삼위일체는 신약성서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들이 인간이 되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을 때, 그리고 특히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의 사건과 행동은 신비롭고 일신교적인 신이 항상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신약은 신의 일을 아들에게 돌립니다. 요한은 이 경향을 확장하고 나머지 신약을 넘어섭니다.

아버지 입니다 . 요한복음 1:12에 따르면, 만약에, 만약에, 저는 성경에 실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철자법과 문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요한 1서에서 대명사가 무엇인지,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때로는 성령인지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저 성경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요한이

참조와 선행사를 바꾸고 있지 않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아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2에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가 입양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성경 전체에서 예수만이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대개 아버지 , 직접적으로든 신성한 수동적 방식으로든. 몇 번은 성령, 예를 들어 로마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베드로전서 3장, 그 끈적끈적한 구절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만 이 성전을 파괴하고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또한 우리에게 영감받은 편집적 주석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라는 성전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 다시 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서 살리는 신성한 일을 하십니다.

전체 그림, 체계적인 그림은 무엇인가? 물론 삼위일체는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특히 성부, 때로는 성령, 그리고 예수는 두 번 스스로를 일으키셨습니다. 글썄요, 요한만이, 그리고 오직 한 곳에서 예수를 선거인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DA 카슨의 *Divine Sovereignty and Human Responsibility, Biblical Perspectives* , Intention은 요한이 선거에 대한 세 가지 그림을 그린다고 올바르게 말합니다.

그는 결코 선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울처럼 예정이라는 단어나 동사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세 가지 다른 주제로 같은 진리를 전달합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에서 네 번이나 이 모티브가 전체 가르침을 뒷받침합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이와 같이,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들을 택했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요한이 복음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제시하지만, 그는 또한 여러 번, 몇 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행 또는 이전의 정체성을 가르친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중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 10:26-ish,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일까? 그렇다. 그렇다.

오, 당신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군요? 물론,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더 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당신이 믿지 않는 것은 당신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와. 즉, 신은 그의 양과 그의; 나는 그들을 염소, 그의 양과 그의 양이 아닌 것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들이 믿기 전에 염소를 사용합시다. 그리고 양은 믿고, 염소는 믿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그것은 암시된 선거 교리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르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며,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그들을 내 손이나 아버지 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성경적 그림이 바울의 선거 교리와 겹칩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아들에게 주는 것은 그들이 믿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행 또는 선험적 정체성입니다. 사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이유입니다.

선거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선거는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사도행전 13:48.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돌아섰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나에게 곧바로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기뻐하였고, 영생을 위하여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섭니다. 사도행전 13:46.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오게 하였노라. 이는 메시아에게 참된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백성, 그의 사도들에게 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임명된 자들은 모두 믿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을 보여준다는 것을 지나가면서 주목하세요.

영생에 임명된 자들은 모두 믿었다. 임명은 믿음으로 이어진다. 아르미니우스주의 방식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영생에 임명된 자들은 모두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을 것이라고 예견하셨다.

그건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야. 말 앞에 수레를 놓는 거야. 아니, 선거는 믿음으로 결과를 낳아.

그것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야 합니다. 요한만이 예수를 선거인으로 제시합니다.

이제, 열매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강조는 선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강조는 열매 맺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강조는 맥락상 제자들이 열매를 맺을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분 안에 머물러 열매를 맺을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후, 그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말해주는 유일한 곳은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머물러 있다면, 너희가 거한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계속 있다면”이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것은 그분과 계속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돌려주는 것, 따뜻한 걸음걸이로, 사랑에 기반하여, 그분께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표시된 언약적 신실함을 계속하고, 구절에서 순종하는 것 등입니다. 제자들이 참 포도나무인 그분 안에 머물러 열매를 맺을 책임을 강조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을 선택한 것이 진짜였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물론 마태는 세리의 부스를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궁극적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그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선택한 뒤에는 그가 그들을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16.

이제 다시 문맥에 맞게 설명하겠습니다. 강조점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임무에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이사야 5 장. 나는 열매를 찾으러 갔습니다. 나는 썩은 열매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짓 포도나무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약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들은 열매가 없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였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것의 실현, 성취입니다. 그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와 연합된 자들,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후에, 아마도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들이, 그들의 거함에 대한 모든 강조를 하지 않도록. 레온 모리스의 에세이가 있는데, 일종의 오래된 신약학입니다.

저는 말씀과 주님과 함께 있는 레온 모리스에게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형제, 호주 신약학자, 아내가 호주 전역을 차로 운전하는 동안 그리스어를 스스로 공부하고, 놀라운 책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수년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저는 때때로 목시록이 전부인 것을 읽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여 성경을 오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말했듯이, 나보다 더 자격이 있는 누군가가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쓸 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자, 그는 종말론에 대한 작은 책을 썼고, 그것은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레온 모리스는 지금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 책에서 반복에 대한 장을 썼습니다. 요한의 반복입니다. 레온 모리스는 요한이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두 번, 세 번, 반복을 멈추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까지, 가장 많은 시간인 여덟 번이나 아홉 번, 요한은 지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한 스타일의 특징인 반복은 레온 모리스의 에세이인 장입니다.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존은 스타일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가 무언가를 반복할 때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는 어휘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는 어순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요약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거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그는 거하라, 뭐, 여덟 번이나 말했거든요.

매번 사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Morris의 터무니없지만 진실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온 작은 결론은 John 21입니다.

아시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아가파오를 쓰지 않고 필레오를 썼고,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모리스는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동사의 변화가 아니며, 그리스어가 보여주듯이, 그러나 강조점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세 번이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이나 그를 부인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동의어를 바꾸고 사용한다는 사실은 요한의 어휘에서 꽤 흔합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 예수를 포함하여, 요한의 어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계속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고, 사도행전의 누가는 사도들의 메시지의 정확한 요약은 제시했을 뿐, 전체 메시지를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리스는 요한이 어휘, 어순 등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훌륭한 작가가 하는 어휘 변화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대답할 수 없어. 나는 대답할 수 없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했어.

모리스는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말한다면, 그는 강조를 위해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제가 수년간 가장 많이 공부한 성경책에서 그것이 사실임을 발견했습니다. 영어 성경과 그리스어 본문으로 여러 가지 변형을 통해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고등 교육 기관인 신학교를 떠났을 때 그들은 수업 카탈로그에서 한 페이지 정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5:16,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ESV,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은 택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임명하여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요, 너희의 열매가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너희에게 주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너희는 잠깐만, 이것은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선거는 제자도와 열매 맺음,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18절의 맥락에서 19절을 살펴보세요.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면,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아십시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된 일이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은 예수에 의한 선택이며, 요한복음과 성경 전체에서만 그러하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9절은 그렇습니다. 봉사를 위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에게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DA 카슨이 Divine Sovereignty and Human Responsibility에서 효과적으로 보여주듯이요. 그런데, 그는 이 책에 In the Gospel of John이라는 부제를 붙이고 싶어했습니다. 그게 그의 논문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믿으시다면요. 그 자체로 방대한 책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것을 요한 복음서라고 부르고 싶어했습니다.

출판사는 그것을 빼면 책이 더 많이 팔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요한 복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자, 선거자, 선거의 저자는 항상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며, 요한 복음에서 아들입니다. 열한 명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유다는 이미 그의 주인을 배신하기 위해 나갔고,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거가 구원과 봉사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택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임명하여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당신의 열매가 남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16.

따라서 아르미니우스파가 선거는 구원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것은 둘 다를 위한 것이고, 사실 무엇보다도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거의 저자라는 진실은 창조 이전의 선거 타이밍을 고려하면 강화됩니다.

아무나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덧붙여 말씀드리죠. 글썄요, 선택하신 주님은 선거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시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알겠죠? 그것은 신성하고, 맏소사,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조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또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제 대답은 그분의 사랑과 뜻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듯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듯이, 선택하신 주님은 우리 완고하고 고집 센 사람들을 택하는 데 큰 은혜감과 유머감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네 구절에서 선거를 선거 전이나 선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시합니다. 제 책, 선거와 자유의지에 대해 언급했었나요? 네, 그것은 PNR 출판사의 뽀뽀스러운 광고입니다. 선거와 자유의지.

저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주요 선거 본문을 다룹니다. 바울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구원을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1:4,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Christian Standard Bible, ESV,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그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9, 아름다운 구절이지만 종종 무시당하고 좋은 움직임이 아니며, 제가 무시당했다고 말했을 때 신학적인 농담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버림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입니다. 이 은혜는 문자 그대로 영원한 시대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입니다.

이것은 선거에 근거한 가장 간절한 바울의 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견하신 것? 아니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죄를 예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예견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거주합니다 . 그 기초는 그에게 거주합니다. 그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목적과 그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모든 신비를 제거하지 않지만, 그것은 거주하고, 선거를 하나님 자신의 성격, 특히 그의 목적 또는 그의 뜻, 그의 계획, 그리고 그의 은혜, 그의 사랑, 그의 자비, 그의 연민의 신비에 속한 곳에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은혜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선거자이며 세상 창조 전에 그의 백성을 택하셨다고 확언합니다. 우리가 그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이 강의에서 나중에 볼 수 있듯이, 성화는 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성도로 구별하십니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평생적이며, 최종적이고 완벽합니다. 오, 저는 그 모든 것의 조합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의 성도에서, 평생의 성화 과정을 거쳐, 완전하고 완벽한 성화라는 확실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보는 하나님의 힘겨운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요. 목사님, 제가 성령이 있어서 힘겨운 줄 아십니까? 네, 성령이 없었다면 힘겨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죄를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투쟁할 때, 우리는 목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거룩함으로 확증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죄스러운 생각, 말, 행동을 단 일주일이라도 가질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의 정경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은 그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의견이 다르지만, 저는 이 성화가 5절의 입양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이라고 이해합니다. 창조 이전에 선거를 두는 것은 방정식에서 인간의 믿음이나 행위를 제거합니다. 로마서 9:11에서 사도가 선거를 이전에 사용한 유사한 사용은 에베소서 1:4에 빛을 비춥니다. 여기서의 유사점은 시간적 유사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에서 이전은 이삭과 야곱의 탄생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시간적 참조와 함께 before라는 단어를 사용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before-ness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아들들, 레베카의 아들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목적, 디모데후서 19장과 같은 단어,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목적이 행위에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게서 서게 하려고 했습니다. 레베카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록된 대로,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지만 에사우는 미워하였노라. 로마서 9:11,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에라고 말하는 게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before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듯하지만 befor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개념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의 행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들이 무엇을 할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SV, 레베카는 한 남자, 그녀의 조상 이삭에게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야곱과 에사의 차이가 서로 다른 아버지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친자 관계는 같습니다.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 신성한 선택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 때문에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다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글썬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택하신 것에 대해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즉 그들이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들이 믿는 것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제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의 목적이 선거에 따라 지속될 수 있음을 보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선거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9:16은 구원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9:11,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음 강의부터 디모데후서 1:9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가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번 세션은 6번째, 선거, 체계적 공식화, 1번째, 저자에 관한 세션입니다

.